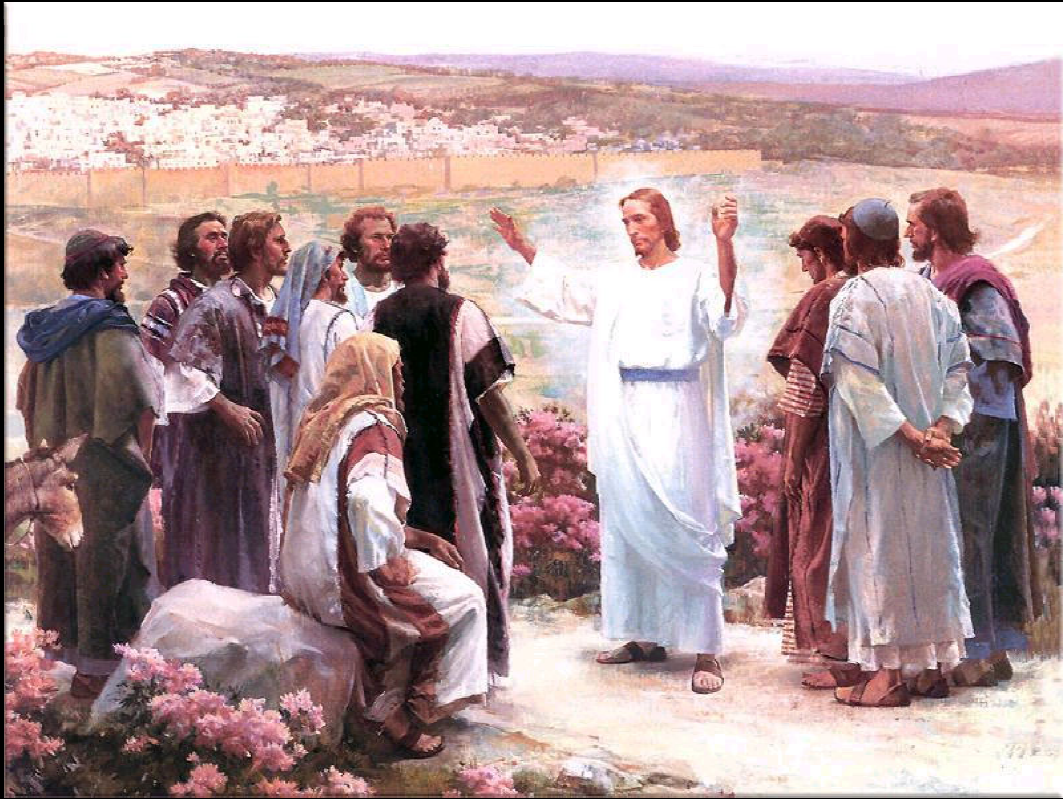


2014 2.16 연중 제 6 주일

제 1 독서 : 집회서 15,15-20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적이 없다.>

제 2 독서 : 코린토 1 서 2,6-10 <세상이 시작되기전 ,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복 음 : 마태오 5,17-37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 제 2 독서와 복음 말씀을 잘 알아 들으면 제 강론이 필요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1 독서와 제 2 독서를 형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느냐가 문제 이지요. 매번 세례를 베풀 때마다 짚막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바리사이파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인데 “ 계명중

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 하는 짧은 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복음 말씀을 바로 물어 보아도 기억을 못합니다. 형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매일미사책을 덮고 오늘의 제 1 독서, 제 2 독서 그리고 화답송에서 들으신 시편이 얼마나 기억이 나시는지 살펴 보십시오? 아마도 복음 말씀은 조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겹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하기 때문입니다. 제 1 독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의지로서 죽음을 선택 할것이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네가 선택하여라**, 그만큼 **하느님은 우리에게 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성당에 나올것이나? 안 나올 것인가? 네가 선택해라. 부자가 될것이나? 아니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성당을 나가고, 안나가고는 어느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을 보면 알지요? 그 분들은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회가 좋으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하느님께 다가가시는 큰 은총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를 더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손을 뺐으셨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잡으셔야 합니다. 그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나? 바로 하느님의 계명 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중요한 계명을 이야기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네 생각대로 살지말고 네 느낌대로 살지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느님을 네 마음과 네 몸과 영혼과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1 독서를 다시 보면, 네가 원하기만 하면 너는 그 계명을 다 지킬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너한테 무엇을 주느냐? 바로 영원한 삶, 또한 이세상에서 힘든일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 하여라. 사람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어머니들 처럼, 우리 앞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때리면서 먹으라고 하셨지만, 제 경우에도 반찬 투정을 한다고 매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맛있는 밥상을 먹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가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숨어서 무슨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분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제인 저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 독서를 잘 읽어보시고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한 삶을 살고있는것인가? 그리고 2 독서를 잘 읽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선택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나의 육신, 내 열정, 욕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지혜에 의해서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을 잘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우리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 매일미사책을 함께 읽어보고 서로 질문을 하여 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선택하여 살고 있는가? 또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안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고 하느님은 말씀 하십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15,15-20

15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16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17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18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19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알이 아신다. 20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2,6-10

형제 여러분, 6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7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8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9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10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7-37 <또는 5,20-22 나 .27-28.33-34 나 .37>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25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26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29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0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1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